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A Study on the Books Stored and Published in Sosu Seowon

裴賢淑(Pae, Hyon-Suk)*

◁ 목 차 ▷

- | | |
|----------------|----------------|
| 1. 緒言 | 5.2 曝曬와 點檢 |
| 2. 紹修書院의 成立 | 5.3 書目的 編纂 |
| 3. 紹修書院 文庫의 成立 | 6. 紹修書院 刊行의 書籍 |
| 4. 紹修書院 藏書의 變遷 | 7. 紹修書院 藏書의 特性 |
| 5. 紹修書院 藏書의 管理 | 8. 結言 |
| 5.1 閱覽과 貸出 | <참고문헌> |

< 초 목 >

조선 최초의 서원인 紹修書院에는 현재의 大學圖書館이라 할 수 있는 文庫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紹修書院 文庫의 起源, 設立者, 刊行 및 收藏된 書籍 管理 書籍의 目錄과 藏書의 特徵에 대해 연구하였다.

설립자인 愼齋 周世鵬이 43종 505책의 서적을 구입함으로써 紹修書院 文庫의 基盤이 마련되었다. 이후 購入, 寄贈(國王, 地方官廳, 書院, 個人), 刊行을 통해 장서는 증대되었다. 서원의 관리를 위해 院規를 제정하였는데, 서적에 관한 조항도 있다. 서적은 반드시 서원 내에서만 閱覽할 수 있고, 밖으로 搬出할 수 없었다. 또 매년 서적을 點檢하고, 때로는 書目을 작성하였다. 결과로 현재 8종의 書目이 전래되고 있다. 가장 많은 서적이 수장되었을 때는 236종이었으나, 이후에도 새로 증가된 서적도 있었지만 산실되어 현재 30종 145종이 전래되고 있다.

藏書의 特徵에 있어 主題에 있어서는 經部 書籍과 史部 書籍이 중심이었고, 양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적은 儒家의 文集이었다. 그러나 子部 書籍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紹修書院에서 板刻한 서적은 『追遠錄』과 『竹溪誌』를 비롯하여 7종이었다.

要語 : 紹修書院, 竹溪志, 書院文庫

* 啓明文化大學 敎授 書誌學專攻 (hspae1977@empal.com)

접수일: 2005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05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llection of the books published and stored in Sosu Seowon(紹修書院). Sosu Seowon was the first established private academy of Chosun dynasty with a good academic library. Here I studied the origin, the founder of the library, administration, books published and stored, catalogues and the features of the library.

The library was established by Sinjae(愼齋) Ju Se-bung(周世鵬), who bought 43 titles of 505 books. Thereafter books accumulated by donations (from kings, province officials, academies, privates), publishing and purchase. Regulations(院規) were implanted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academy. One regulation on books meant books must be read in the compound of Seowon. Books were aired and inventoried every year, and were intermittently catalogued. As a result 8 catalogues remain at present day.

Books increased to 236 titles, but gradually scattered over time and now stand at 30 titles 145 books. The main subjects were Confucianism(儒學) and history(歷史), and many books in quantity were munjjib(文集), confucian works. But other philosophical books(子學) excluding Confucianism were not found much. There were 7 titles engraved by woodblocks(板木) at Sosu Seowon, including 「*Chuwonrog* 追遠錄」 and 「*Jug-gye-ji* 竹溪誌」

Key words : sosu seowon, Jug-gye-ji, seowon library.



1. 緒 言

고려 후기 이래 경제와 문화의 발달로 학술도 발전하였고, 그 영향으로 문인과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결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문운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은 사대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를 선도하고 문인과 학자를 우대하는 사회였다. 그러므로 각종 문고가 발달하였다.

조선의 官營文庫는 국가의 핵심 장서처로서 集賢殿, 弘文館, 奎章閣의 藏書閣과 史庫 등이 있었고, 이들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조선초부터 불교는 억압의 대상이었으므로 고려시대만큼 寺刹文庫가 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명맥은 유지되었으므로 개괄적인 연구만 이루어진 바 있다. 문인과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문고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전래하는 기록이 드물어 私人文庫의 연구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사가의 장서목록이 소수 전래되고 있어서 楊州 洪淳馨家門의 「晩齋藏書記」와 「萬卷樓藏書目錄」, 谷城 丁日宇家門의 「經史子集入櫃錄」과 「[默容室]書籍目錄」, 金正喜家門의 「留餘觀藏書」 등은 연구되었다. 목록은 전하지 않지만 奉化 冲齋 權櫟家門의 장서, 長興 梧川 精舍의 藏書, 海南 尹善道家 綠雨堂의 장서, 醴泉 味山 朴得寧家門의 장서, 論山 尹拯家門의 장서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공사의 교육기관도 조선시대에는 학술이 발달하고 과거제도의 발달로 많이 설립되었다. 敎育文庫로는 成均館의 尊經閣이 중앙의 교육문고로 활동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방에 설립된 鄕校와 書院에도 文庫가 설립되었던 바, 기록이罕傳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¹⁾가 행해졌다. 私人文庫의 書院文庫化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退溪의 手澤本 및 收藏本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退溪의 장서는 그가 설치한 易東書院과 陶山書堂의 기본장서가 되어 후에 서원문고의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밝힌 바²⁾ 있다. 결국 이 두 서원 장서의 핵심은 설립자나 주향자의 장서였다.

1)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서울: 國國會圖書館, 1969).

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2) 裴賢淑, “退溪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v.10 (1994.12), 135-169.

그러나 개개 서원의 장서에 대해서는 屏山書院의 「屏山書院書冊目錄」만 연구되었을 뿐이다.³⁾ 본고에서는 조선 최초의 사액 서원인 紹修書院文庫의 成立, 收藏하고 있던 서적과 刊行한 서적, 藏書管理 藏書의 特性 등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 紹修書院의 成立

조선시대 서원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선현을 봉사하는 '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齋'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일차적인 것이었다. 서원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이전 士林派系列의 학통은 주로 書齋, 精舍, 家學으로 전수되었다. 고려말 性理學의 수용과 함께 시작된 지방 사학의 실체로서 土子의 단순한 藏修와 講學의 장소였던 書齋와 精舍 등이 엄격한 學規에 의해 운영되는 書院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조선의 서원은 順興의 白雲洞書院에서 비롯된다. 이 서원이 우리나라 선현을 봉사하는 향사의 기원이자 서원의 효시였다. 周世鵬이 중종 39년(1544)에 文成公 安珦⁴⁾이 살던 곳에 유생들이 학문을 돈독하게 하도록 창건한 것이다. 이 서원은 제도와 규모에 있어 대개 朱文公이 세운 白鹿洞書院을 모방한 것이다. 이후 서원의 濫設과 腐敗로 고종 5년(1868)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周世鵬은 자는 景游, 호는 愼齋, 南阜, 武陵道人, 巽翁 등 여럿을 사용하였다. 중종 17년(152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관직을 시작하여, 승문원 정자, 홍문관 정자, 수찬, 공조좌랑, 병조좌랑, 강원도도사를 거쳐 사간원헌납을 지냈다. 중종 32년(1537) 金安老의 전권을 피하기 위해 모친을 봉

3)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v.14 (1994.12), 37-65.

4) 朝鮮王朝實錄. 宣祖 37년 2월 壬辰. 권171. 책24. 566 下左

安珦은 조선 文宗의 御諱를 범한 것이 되어 선조 37년 2월에 安裕로 追改되었다.

양한다는 이유로 외직을 청해 昆陽郡守로 나갔다. 중종 33년(1538) 檢屍官으로 濫刑을 한 상관을 비호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되었다. 승문원교리, 예빈시정을 거쳐 중종 36년(1541) 풍기군수가 되었다. 이때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명종 즉위년(1545) 성균관 사성, 홍문관 응교, 전한, 직제학, 도승지를 역임하고, 명종 3년(1548) 호조참판이 되었다. 명종 4년(1549) 황해도 관찰사가 되자 해주에 首陽書院을 건립하였다. 이후 대사성,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다 병으로 사직하여 동지성균관사에 체임되었다. 사후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명종 4년(1549) 함안군 칠원의 德淵書院에 주향되었고, 인조 11년(1633) 소수서원에도 배향되었다. 저서는 「竹溪誌」, 「海東名臣言行錄」, 「進獻心圖」, 「武陵雜稿」가 있다.⁵⁾

愼齋 周世鵬은 2개의 서원을 설립하였으니 최초로 白雲洞書院을 설립하였고, 두 번째로 首陽書院을 설립하였다. 首陽書院은 고려의 崔冲을 모신 서원인데 愼齋가 중심이 되어 명종 5년(1550)에 설립하였다. 崔冲은 ‘海東孔子’라는 칭송을 받았고, 시호는 文憲이다. 그는 서북지방에서 후진들을 지도하였는데, 그 문하생은 文憲公徒라 불렸다. 해주에 감사로 임명된 愼齋는 명종 4년(1549) 가을에 古蹟을 탐방하다가 首陽山에 잠소가 우거진 崔冲의 사당을 참배하고서 좁고 누추함을 한탄했다. 이듬해인 명종 5년(1550)에 향교 서쪽에 터를 닦고 사당을 옮기어 魂靈을安置하고 그 아래에 서원을 세웠다. 또한 집에 수장하고 있던 서책을 보내고, 경비를 마련할 전답과 관리할 인원도 파견하였다. 그리고는 이름을 ‘首陽書院’이라 하고, ‘서책은 문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여자는 들어오지 못한다[書不得出色不得入]’는 여덟 글자를 門楣에 揭示하는 등 그 조치하는 방도를 세밀하게 하였다.⁶⁾ 이에 生員 金澤 등이 상소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扁額과 書籍 등의 일을 한결같이 紹修書院과 臨臯書院의 예대로 조치하였으므로 3번째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愼齋는 首陽書院을 설립하기에 앞서 먼저 白雲洞書院을 설립하였다. 愼齋는 중종 38년(1543) 文成公 安珦이 살던 순흥의 宿水寺⁷⁾ 옛 터에 安珦의 제향을 위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1992).

6) 朝鮮王朝實錄. 明宗 10년 2월 庚寅. 권18. 책20. 258.

7)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서울: 一潮閣, 2001), 78.

해 祠廟를 지었다. 이듬해 중종 39년(1544)에는 유생들이 학문을 돈독하게 하도록 白雲洞書院을 창건하였다.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朱文公이 세운 白鹿洞書院을 모방한 것이었다.⁸⁾ 서원 건립의 목적은 敎化였으며 敎化는 반드시 尊賢으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으니, 祠廟는 교화를 위한 尊賢處였고, 書院은 유생의 藏修處였다.

愼齋는 白雲洞 文成公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 앞에 서원을 창건한 후 유생의 학문과 아울러 서원의 경영을 위하여 院規를 제정하고, 學田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學田을 세우고, 實米를 세워 유생들의 藏修의 廩田으로 삼고, 장서도 구비하였다. 이에 대해 <學田錄>과 <藏書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독지가의 희사가 상당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으니, 읍인 진사 黃彬이 租米 75섬을 희사한 것이다.⁹⁾ 당시 마련한 학전은 72負4束의 밭과 1結94負3束의 논이었다. 학전은 사당 곁에 본래 공전이 사유로 된 것을 다시 사당에 환수하여 위전으로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實米 40석을 비치하여 유생의 藏修에 이바지할 음식의 비용으로 삼아 부족함이 없게 한 것 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愼齋가 서원에 서적을 구비하고 학전을 마련한 내용이 서신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注書 安挺然에게 보낸 편지에서 「朱子全書」와 「朱子語類」는 아직 구입하지 못해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고, 「綱目」도 구입하고자 하나 값이 다른 책보다 비싸서 구입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타진하기도 하였다.¹⁰⁾ 또 사당을 건립하려고 땅을 판지 1차도 못되어 銅器 300여근을 얻어¹¹⁾ 布 10同(500필)에 준하는 값으로 한성으로 보내 「四書」, 「五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大學衍義」,

宿水寺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폐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이미 16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8) 朝鮮王朝實錄. 明宗 5년 2월 丙午. 권10. 책19. 682.

9) 竹溪誌. 木活字本. [高宗 21(1884)] 권2. 張12a-13a. 順興白雲洞紹修書院學田記.

10) 周世鵬, 武陵雜稿. 木版本. [哲宗 10(1859)] 권5. 張.18-20. 與安挺然.

11) 朝鮮王朝實錄. 中宗 36년 5월 丁未. 권95. 책18. 466 下右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서울: 一潮閣, 2001), 80.

李樹煥은 서원이 寺院經濟를 침탈해가는 과정에서 사원으로부터 탈취한 銅器 300여근을 서원 기공 전에 땅 속에 묻어놓고 서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通鑑綱目」 등의 서적을 구입하였다.¹²⁾ 이렇게 마련한 서적의 목록이 <藏書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백운동서원이 발전하게 된 것은 명종 1년(1546) 경상도 관찰사로 도입한 安珦의 11대손 安珰에 의해서였다. 安珰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 방침을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安珰은 명종 2년(1547)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를 확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서원운영의 방침을 수립하였다. 입의의 조건은 9개 항목으로 春秋享祀, 儒生養成規定, 祠院의 建築, 奴婢의 生計, 耕作地 運營, 儒生의 食生活, 藏書管理 등 다방면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로서 서원의 享祀에서부터 學田과 書籍의 運用 및 管理, 奴婢와 院屬의 管理 등 書院運營, 維持에 필요한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백운동서원은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관계기록이 집성된 것이 「紹修書院謄錄」인데 명종 1년(1546)부터 현종 11년(1670)까지 수록되었다. 그러나 주로 명종 1~2년에 집중되어 있다.¹³⁾

이후 白鹿洞書院을 명실상부한 유생의 藏修處이자 講學所로 발전시킨 것은 풍기군수 李滉이다.¹⁴⁾ 명종 5년(1550) 풍기군수였던 李滉이 관찰사 沈通源을 경유하여 조정에 書籍, 土地, 奴婢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함에 따라 紹修書院이라는 扁額을 받아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당시 임금은 대제학 申光漢에게 명해 「四書」, 「五經」과 「性理大全」을 白雲洞書院에 하사하였다.¹⁵⁾ 이런 조치는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서원들의 설립과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으로 두 번째로 명종 9년(1554) 영천의 臨臯書院, 세 번째로 명종 10년(1555) 해주의 首陽書院 네 번째로 명종 21년(1566) 함양의 濫溪書院이 속속 사액되었다.

愼齋가 서원을 건립한 것은 鄉村 士林의 敎化를 목적으로 하였고, 교화는 반드시 尊賢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을 교화

12) 周世鵬, 武陵雜稿. 木版本. [哲宗 10(1859)] 권5. 張. 23-24. 與牧使安璋. 安明烈, 晦軒先生實紀. 木活字本. [隆熙 3(1909)] 권3. 張. 3. 與安牧使璋安承旨玟書. 위의 두 자료에는 銅器 300여근이 아닌 鑪金 120근으로 표현되어 있다
13)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第17(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1-2.
14) 鄭萬祚,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8 (1980), 42-43.
15)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 (京城: 朝鮮總督府, 昭和 12) 張. 16.

하기 위해서 그 지역출신을 존중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愼齋는 서원을 통하여 사림을 교육하고 사림의 중심기구로 삼아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일부 사림과 安珦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풍기사림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서원이 풍기에 소재하기는 하였으나 경상도내 각 군현의 유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종 5년(1550) 사액된 이후 소수서원은 국가의 公認 私學으로서의 위치를 굳힘과 동시에 점차 豐基 士林의 中心 機構로 변모해갔다.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를 완전히 장악한 선조 이후부터는 풍기의 사림들도 적극적으로 서원에 참여하게 되어 향촌의 중심기구로 변모했다. 이리하여 豐基郡은 영남의 文獻之地일 뿐만 아니라, 賜額書院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고을의 수령은 반드시 문관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치른 뒤로 蔭官을 뽑아 보낸 때가 있어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겼으므로, 선조 33년(1600)에 음관 韓諄은 체차되기도 하였다.¹⁶⁾

3. 紹修書院 文庫의 成立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교재와 참고도서를 구비하는 것이다. 소수서원에서도 서적의 마련은 필수적이었다. 愼齋는 學田과 寶米를 세워 서원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생의 학문을 위해 장서를 구입하였다. 당시 愼齋가 구입한 장서에 대해 『中宗實錄』에서는 ‘경서뿐만 아니라 程朱學 서적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退溪가 사액을 요청한 글에서는 ‘경사자집이 百千卷이라고 하였다. 설립초기의 서적으로 愼齋가 구입한 서적은 <白雲洞書院藏書錄¹⁷⁾>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서원 창건당시(1544)의 기록이므로 서원 초창기의 장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장서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16) 朝鮮王朝實錄. 宣祖 33년 9월 癸卯. 권129. 책24. 122.

17) 周世鵬編, 竹溪志. 木版本. [明宗 15(1560)] 권4. 張. 7a-8b.

周世鵬, 安昞烈編, 竹溪誌. 木活字本. [高宗 21(1884)] 권2. 張15b-16b.

周世鵬, 安昞烈編, 竹溪誌尊賢錄. 木版本. [隆熙 3(1909)] 권3. 張10b-11b.

「竹溪誌」에 서원의 장학과 관계되는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이 수록되어 있다. 「竹溪誌」는 여러 차례 간행되어 목판본 6권3책본(16세기), 목활자본 3권1책본(1884, 1900), 목판본 5권1책본(1909) 3종과 목판본의 후쇄본이 전래되고 있다. 목판본 6권3책본의 권4 藏書錄 또는 목활자본 권2 尊賢錄의 말미에 <白雲洞書院藏書>라 제한 서적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¹⁸⁾ <白雲洞書院藏書錄>은 조선 최초의 서원장서목록으로 소수서원에 소장된 서적의 초기목록이다. 이들 서적의 목록을 비치해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慎齋의 서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목록에 수록된 서적은 43종 525책이다. 말미에 ‘嘉靖甲辰(1544)歲藏書合錄五百卷’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중종 39년(1544) 慎齋가 서원을 건립했을 때 구입한 서적을 500여권¹⁹⁾이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명종 2년(1547)에 작성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에는 慎齋가 구입한 서적을 분명히 525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초판본과 후기 목판본에 수록된 서적과 목활자본에 수록된 서적이 동일하지 않은데 약 162책의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²⁰⁾ 서명 뒤에 *를 첨부한 서적들은 현존 最古本인 영남대학교 소장본에는 「麗語編錄」 다음 「宋鑑」 앞에 수록되었으나,²¹⁾ 현전하는 後刷本 또는 後刻本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竹溪誌」의 현존 초기간본은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권2-4의 1책과 고려대 晩松文庫本이 6권3책이다. 四周單邊, 大黑口에 內向黑魚尾이다. 영남대

- 18) 周世鵬, 竹溪志. 影印本. (영주: 영주시, 2002) 卷4. 張7-8. 藏書錄
이 영인본은 초판의 판목에 마멸이 심한 부분은 사본으로 대체하거나 다시 판각하여 보충한 수보본이다. 重刊의 誌文을 쓴 安承奎와 安東濬은 「竹溪誌」 편찬 후 400년 이후 戊申年에 쓴 것이므로 최근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 19) 屈萬里, 昌彼得. 「圖書版本學要略」(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 67), 5-11.
卷과 冊은 一般에서는 區分없이 混同하여 쓰고 있으나 書誌學에서나 文獻情報學에서는 分明히 區別하여 使用하고 있다. 卷은 內容에 의한 즉 書誌의인 冊數, 冊은 製本單位 즉 物理的인 冊數를 意味한다. 그 由來를 살펴보면 卷은 戰國時代부터 使用된 帛書의 遺制이며, 書寫時 글의 長短에 의해 隨時로 裁截하고 다 쓰면 말아두었기 때문에 捲이라고도 한 것이다. 冊은 殷 이후 使用된 竹簡을 編連시킨 것인데 策이라고도 하는데 簡牘의 遺制이다. 여기에서는 500여권이란 엄격하게 말해 500여책이다.
- 20)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18.
- 21) 周世鵬編, 竹溪志. 木版本. [明宗 15(1560)] 권4. 張. 7a-8b.

<표 1> 白雲洞書院藏書

書名	卷(部)數	書名	卷(部)數	書名	卷(部)數
周易大全	14	大學	1	自警編	7
春秋附錄大全	17	中庸	1	通鑑	15
春秋胡傳大全	7	中庸或問	1	文選	15
春秋胡傳小全	4	論語大全 2건	14	楚辭	2
禮記大全	16	孟子大全 2건	14	文章軌範	2
禮記唐板小全	10	孟子大文	2	麗語編錄	20
詩大全	9	近思錄 2건	8	宋鑑	16
詩大文	2	性理大全	36	博物志	1
書大全	9	朱子大全	70	續博物志	1
書諺吐	8	大學衍義	12	樊川集	4
書大文	1	名臣言行錄	16	完陵集	1
周禮	7			小計 34종	363
小學 * 2 건	8	伊洛淵源錄 *	2	柳子厚集 *	13
東國通鑑 *	29	朱子語類 *	59		
韻府群玉 *	10	左傳大全 *	23		
眞西山心經 *	2	韓昌黎集 *	16	小計 9종	162
				合計 43종	525

본 권두에는 ‘嘉靖三十九(1560)年 月 日…’이라 묵서되어 있으나, 묵서의 뒷부분은 오래내진 상태이다. <藏書錄>은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장본 가운데 最古本은 목판본인 일사본으로 보인다. 古1360-7A에 비해 목리도 적고, 필사된 부분이 없다. 다만 <藏書錄>의 마지막 장이 낙장이어서 「宋鑑」, 「博物志」, 「續博物志」, 「樊川集」, 「完陵集」이 탈락되었다. 「麗語編錄」 다음 공간에는 계선이 있다. 다음은 목판본 古1360-7A로 初刻版에서 후에 인출된 것으로 간혹 필사된 곳도 있다. <藏書錄>에는 「大學或問」은 1부라고 필사되어 있고, 「麗語編錄」 다음 공간에는 계선이 없이 「小學」부터 「柳子厚集」까지의 9종이 필사되어 있다. 그 다음의 목판본인 가람본은 初刻版을 후에 修補하여 선명하게 인쇄된 紙張과 木理가 심하게 나타나는 紙張이 혼재되어 있다. 古1360-7A에 필사된 곳을 새로 판각해서 보충한 것이다. <藏書錄> 부분이 없어서 변동사항을 알 수 없다. 다음의 판본은 고종 21년(1884)에 간행된 목활자본 古1360-7로 보인다. 여기에는 安昞烈의 발문이 있다. 「或問」과 「論語大文」이 첨가되어 있고, 「中庸或問」과 「孟子

大文」이 없다. 이는 저본으로 한 판본의 <藏書錄>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음으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학교에는 융희 3년(1909) 간행의 목판본이 수장되어 있다. 이 책은 권5의 권말 권차가 권3으로 기록되어 3권1책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榮州市에서 발간한 영인본에는 간혹 필사한 부분도 있고, 「麗語編錄」다음은 공란으로 계선까지 삭제되고, 이어 「朱鑑」으로 연결되었다. 이로 미루어 영인의 저본이 된 서적도 그 인출연도는 규장각의 古1360-7A와 거의 같은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愼齋가 마련한 서적의 대부분이 성리학의 기본경서인 「四書」와 「五經」으로 조선조에 전통적으로 수학하던 고전경서였다. 愼齋가 구입한 경서는 송유역불을 국시로 삼았던 그 당시 사회상에 있어 중앙의 成均館이나 四學 또는 지방의 향교에서의 교육에 꼭 필요한 서적이었다. 그리고 「性理大全」, 「朱子大全」, 「近思錄」 등은 모두 성리학의 수준 높은 서적이다. 또한 「文選」, 「楚辭」, 「文章軌範」, 「麗語編錄」은 문장의 수사에 관한 서적이며, 「名臣言行錄」, 「自警編」 등은 언행을 수양하는 서적이었다. 따라서 愼齋는 서원유생들의 관리 진출과 더불어 선비로서의 학식과 교양을 갖출 수 있는 서적 500여책을 비치함으로써 서원문고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4. 紹修書院 藏書의 變遷

앞에서 살펴본 바 소수서원에는 창립(1544)시에 구비한 서적이 43종 525책이 있었다. 명종 2년(1547) 2월에 安瑒이 마련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에는 「竹溪志」외 서책 525권과 새로 구비한 49권을 등록하여 서원 밖으로 가져갈 수 없게 하고 표지가 손상되면 郡에서 수보하며, 完帙 여부를 연말에 보고하여 망실이 없게 할 것을 정한 바 있다.²²⁾ 이로서 창립 후 3년만에 「竹溪志」²³⁾

22)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張2.

23) 「竹溪志」는 6권3책의 木版本, 3권1책의 木活字本과 5권1책의 木版本이 전래되고 있다. 이

외에 574책의 서적을 비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2월말에 「大學」1책, 「中庸」1책, 「論語」7책, 「孟子」2권 7책, 「詩」10책, 「書」9책, 「春秋」8책, 「童蒙先習」1책, 「童蒙須知」1책, 「入學圖說」1책, 「天運紹統」2책, 「朝鮮賦」1책, 「張東海大法貼」1권을 수송해왔다.²⁴⁾ 명종 5년(1550) 3월에는 관찰사가 「晦庵詩文」1권²⁵⁾을 보내왔다.²⁶⁾ 결국 사액되기 이전에 637책 이상의 서적이 수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불과 6년만에 109책 이상 증대되었다.

그 이후 백운동서원의 장서는 명종 5년(1550) 풍기군수였던 李滉이 관찰사 沈通源을 통해 건의하여 사액서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書籍頒賜의 혜택을 받아 그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사액시 하사받은 서적이 「四書」, 「五經」, 「性理大全」이다. 명종 7년(1552) 3월에 說經 安璣가 조정에 서적을 인출할 때에는 소수서원에도 서적을 반사해줄 것을 청하자²⁷⁾ 새로 인출한 「綱目」과 「事文類聚」를 특별으로 하사하였다.²⁸⁾ 이들 서적은 서원 장서의 中核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광해군 8년(1616) 8월 기사에 ‘紹修書院에 하사한 『綱目』은 字板이 매우 좋은데, 주조한 활자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도 인출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校印都監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한 바²⁹⁾ 있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 초기에도 소수서원에 서적을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종 4년(1653)에 작성된 「院中書冊置簿」에는 「綱目」1 권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년간에는 반사되지 않은 듯하다. 이후 하사본은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고, 또한 감영간본, 지방관청 간본의 기증도 이어졌을 것이며, 사가판, 다른 서원간본의 기증과 자체간본도 있었을 것이므로 서적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들 서적의 증가는 서원에서 작성한 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조 35년(1602) 7월에 작성된 「紹修書院書冊置簿」에는 107종 1,678책이 수록되어 있다

가운데 6권3책본이 초기간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3책으로 계산한다.

24)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張. 10.

25) 院中書冊置簿. 1책. 寫本. [孝宗 4(1653)-肅宗 23(1697)] 張. 8에 3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26)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張. 15.

27) 朝鮮王朝實錄. 明宗 7년 3월 庚戌. 권13. 책20. 79下左.

28) 朝鮮王朝實錄. 明宗 7년 4월 丁丑. 권13. 책20. 83下右.

29)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8년 8월 庚戌. 권106. 책32. 505下左.

효종 4년(1653)에 작성된 「院中書冊置簿」에 수록된 서적은 122종이며, 권말에 다른 서체로 追錄된 서적이 21종이다. 숙종 24년(1698)부터 영조 37년(1761)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이 수록되었고, 추록된 서적이 14종이다. 영조 38년(1762)에 작성된 「紹修書院冊錄」에는 서적 209종과 책판 7종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도 권말에 다른 서체로 追錄된 서적은 27종이다. 정조 20년(1796) 8월에 작성된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에는 163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고, 순조 10년(1810)까지 서적 39종, 책판 3종 450판이 추록되었다. 고종 12년(1875)에 작성된 「乙亥七月三日布曬書冊見存目錄」에는 181종이 수록되었고, 고종 28년(1891)까지 16종이 증가되었다. 1917년에 작성된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에는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었다. 단기 4284(1951)년에 작성된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에는 94종 574책이 수록되었다.

「紹修書院冊錄」에 수록된 서적 종수에 비해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과 「乙亥七月三日布曬書冊見存目錄」에 수록된 서적 종수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점검하면서 대출되었다가 회수되지 못한 서적을 망실서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양이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많던 서적이 李春熙가 조사한 1969년에는 낙질본이 많은 141종 563책만 전래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1966년에 石版으로 간행된 「辨整錄」도 수록되었으므로 1951년 이후에도 서적은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반 이상이 文集이었고, 나머지는 經書 및 歷史書로 完帙本은 거의 없었고, 파손된 책이 많았다. 더구나 「紹修書院書冊置簿」에 수록된 서적은 32종 243책만 수장되어 있어 약 85%를 분실한 셈이 된다. 더구나 임진왜란 전 內賜本은 21종 663책이었는데, 李春熙가 조사한 1969년에는 4종 123책만 남아있었다.³⁰⁾ 고종 28년(1891)까지 197종 수장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약간의 증가분이 있었을 것인데, 많은 서책이 분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소수 서원이 입은 장서상의 피해는 상당한 양에 달한다. 그렇지만 서목 하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장서 점검한 결과 뒤섞여 책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紹修

30) 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60.

書院書冊置簿」에 수록된 분실본과 수장본의 비율로 전체 분실 서적수를 추측한다면 적어도 2,600책 이상을 분실한 셈이다.³¹⁾ 이 수치가 매우 유동적이긴 하지만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는 서적의 보존과 관리가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귀중한 서적들을 상당히 상실한 것이다. 이후에도 분실이 있어 南權熙가 1997년에 조사했을 때는 모두 30종 145책만 수장되어 있었다.³²⁾ 가장 많았을 때 236종 중에서 13%만 남은 것이다. 1950년 6·25사변기간에 많은 손실이 있었음은 물론 이후에도 관리가 부실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표 2> 紹修書院 藏書의 增加

年 度	冊 數	備 考
중종 39(1544)	서적 43종 525책	周世鵬 購入
명종 2(1547)	서적 634책	朝鮮史料叢刊
명종 5(1550)	서적 637책	朝鮮史料叢刊
명종 5(1550)	上同 + 四書, 五經, 性理大全	賜額
명종 7(1552)	上同 + 綱目, 事文類聚	內賜
선조 35(1602)	서적 107종 1,678책	紹修書院書冊置簿
효종 4(1653)	서적 122종	院中書冊置簿
숙종 23(1697)	서적 143종(21종 증가)	追錄
[숙종 24(1698)]	서적 168종, 책판 7종(25종 증가)	書冊目錄
[영조 37(1761)]	서적 182종, 책판 7종(14종 증가)	追錄
영조 38(1762)	서적 209종, 책판 7종(27종 증가)	紹修書院冊錄
정조 9(1785)	서적 236종, 책판 7종(27종 증가)	追錄
정조 20(1796)	서적 163종(73종 감소)	丙辰…紹修書院冊都錄
순조 10(1810)	서적 202종, 책판 3종(39종 증가)	追錄
고종 12(1875)	서적 181종(21종 감소)	乙亥…見存目錄
고종 28(1891)	서적 197종(16종 증가)	追錄
1917	서적 129종, 책판 6종(68종 감소)	丁巳…書冊目錄
1951	서적 94종 574책(35종 감소)	辛卯…現存目錄
1969	서적 141종 563책(47종 증가)	李春熙 調査
1997	서적 30종 145책, 책판 4종(111종 감소)	南權熙 調査

31)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62.

32)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油印本. (榮州: 紹修書院, 1998), 13.

5. 紹修書院 藏書의 管理

도서관에서는 장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管理規程이나 閱覽規則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조선시대에도 이와같은 규정이 있었다. 서원에도 관계규정이 있는데, 특히 院規라고 하여 서원전반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소수서원의 院規에 규정된 바 첫째는 謹祀, 둘째는 禮賢, 셋째는 修字, 넷째는 備廩, 다섯째는 點書이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서적의 관리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서적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산실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5.1 閱覽과 貸出

소수서원의 원규에 서적의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원규 7조에 邑宰의 자제들이 서원의 서책을 함부로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³³⁾ 이들이 서적을 멋대로 한다면 반드시 연줄로 인하여 흠치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되어, 결국은 유실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14조에도 서적은 모두 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서적을 서원 문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³⁴⁾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생들이 서원의 서적을 열독하고자 하면 반드시 서원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고, 서원 밖으로의 반출은 엄금되었다. 이에 서적마다 앞 面紙에 ‘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墨書 한 것이다. 이는 유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적의 문밖 搬出禁止는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다. 서목 곳곳에 대출자와 대출 일자를 기록한 곳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결국 망실되었음을 표기한 곳도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다른 열쇠를 가진 3명의 齋任이

33) 周世鵬編, 竹溪志. 木版本. [後刷本] 권4. 竹溪志雜錄後. 張. 3.

安明烈, 晦軒先生實紀. 木活字本. [隆熙 3(1909)] 권3. 張. 21. 院規.

34)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張. 2.

합석해야 서고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듯하다.

5.2 曝曬와 點檢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14 조에는 서적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서적의 표지가 손상되면 郡에서 수보하고 完帙 여부를 연말에 보고할 것³⁵⁾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장서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 원규 5조에 장서점검은 致齋일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致齋일에 장서를 거풍시키고 점검함과 아울러 건물과 담장을 살펴보고, 회계, 미곡, 집기도 살펴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受禧日には 여러 斯文들이 이를 함께 살펴도록 규정하였다.³⁶⁾ 司馬有司는 節氣마다 반드시 검속하고, 院中有司는 매달 반드시 검속할 것을 규정하였다. 致齋日には 많은 원임, 유사와 유생이 입회할 수 있으므로 서적의 분실을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규에 서원의 장서는 연 1회 曝書와 點檢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5.3 書目的 編纂

서목은 대개 두 가지 이유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引受引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傳掌記이고, 하나는 藏書點檢을 위해 편성한 藏書點檢目錄이다.

소수서원에서는 서원의 임원이 교체되면 담당자도 바뀔에 따라 인수 인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 노비, 서적에 대한 傳掌記를 작성하였다. 소수서원에는 傳掌記가 4책 전래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서적에 대해서 '전과 같다' 또는 서목에

35)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張. 2.

36) 周世鵬編, 竹溪志. 木版本. [後刷本] 권4. 竹溪志雜錄後. 張. 3.

安明烈, 晦軒先生實紀. 木活字本. [隆熙 3(1909)] 권3. 張. 20. 院規.

있다'라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서적만의 전장기는 볼 수 없었다.

다만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만 전래되고 있다. 이는 단기 4284 (1951)년에 작성된 인수인계 목록이다. 모두 94종 574책이 수록되었다. 권말에 6·25사변으로 서원의 건물과 비품을 파괴하고 서적 전부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사용한 것을 복귀 후 乙亥年冊目錄에 따라 남아있는 책자를 조사하여 인수인계한다라는 朴寅鍾의 후기가 있다. 이를 보면 1917년의 「書冊目錄」을 제외하고 직전의 서목은 고종 12년(1875)의 「乙亥七月三日布囑書冊見存目錄」으로 보인다. 6·25사변으로 서원이 입은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서적의 분실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유사와 재임이 입회하여 포쇄하고 점검할 때 기존의 서목을 활용하거나 새로 작성하였다. 점검시에는 종전의 목록을 토대로 점검하여 현품의 유무와 현물이 없는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고의 목록은 「竹溪誌」에 수록된 목록이다. 그 다음에 편성된 목록은 「紹修書院書冊置簿」 1책이 있었으나 행방을 알 수 없다. 소수서원의 장서목록으로 남아있는 서적은 「院中書冊置簿」 1책, 「書冊目錄」 1책, 「紹修書院冊錄」 1책,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 1책, 「乙亥七月三日布囑書冊見存目錄」 1책,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 1책이다. 이들 서목에는 원장과 재임이 수록된 것도 있으나 인수인계시의 서목과도 다른 양상이다. 모두 인수인계시에도 사용되고, 장서점검할 때도 사용된 서목이다.

소수서원의 초기목록은 수입선별로 편성한 듯하다. 사액된 후 52년 후인 선조 35년(1602)에 편찬된 「紹修書院書冊置簿」가 예가 될 수 있다. 기록상 이 목록은 당시 소수서원에 수장되어 있던 서적을 '內賜'와 '道上院備'로 나누어 수록한 것이다. '內賜'는 국왕으로부터 기증받은 서적이며, '道上院備'는 경상감영에서 기증한 서적을 수록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수입선을 알 수 있다.³⁷⁾ 이 목록에는 사액 후 임진왜란까지 40여년간 마련한 서적을 입수방법에 따라 나누어 수록하였는데, 현재 이 목록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이 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시까지 기증받은 서적과 아울러 구입한 서적도 더 자세하게 알 수

37) 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22.

있겠다.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는 「院中書冊置簿」의 표지 서명도 紹修書院冊錄이다. 효종 4년 계사(1653) 9월초에 院長 黃³⁸⁾과 別有司 郭과 金이 확인한 것이다. 이후 숙종 23년(1697) 간행의 「綱鑑會要」까지 25종이 수록되었다. 이 책을 통해 앞서 효종 7년 병신(1656)에도 점검한 바 있으며, 이 책을 가지고 기해(1659), 신축(1661), 임인(1662), 계묘(1663), 을사(1665), 정미(1667), 기유(1669), 경술(1670), 신해(1671), 임자(1672), 정축(1697)년 점검한 기록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목록으로 숙종 23년(1697)까지 점검했음을 알 수 있다. 효종 4년(1653) 기록분에는 122종이 수록되어 있고, 21종이 수록되어 합 143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병신(1656)의 경우는 曝曬라 기록되어 있고, 기해(1659), 신축(1661), 임인(1662)의 경우에는 書冊燔閱 이라 기록되어 있어 포쇄하면서 점검한 것을 알 수 있다.

「書冊目錄」은 전후 표지가 모두 탈락되어 작성년대를 알기 어렵다. 서적 136종, 畫像과 碑銘 25종, 서원 기록류 7종, 책판 7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14종이 수록되었다. 내용 중에 「肅廟寶鑑」, 「朴正字遺稿」도 보이고, 「六臣遺稿」 판목 아래에 「辛亥十二月二十一日移送于彰節祠詳見雜錄」이라 기록되어 있다. 彰節祠는 寧越에 있던 六臣祠를 숙종 35년(1709)에 彰節祠로 사액한 것이다. 「六臣遺稿」 판목이 寧越에 수록된 것은 「各道冊版目錄」에 보인다.³⁹⁾ 「各道冊版目錄」이 편성된 것은 현종 6년(1840)이다. 이 목록에 「肅廟寶鑑」과 「朴正字遺稿」 등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숙종 24년(1698) 이후 영조 37년(1761) 사이에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는 「紹修書院冊錄」은 영조 38년 임오(1762) 4월에 점검용으로 새로 편성한 목록이다. 院長은 權(九淵), 齋任은 裴(憲謨), 徐(昌協)⁴⁰⁾이 작성한 목록이다. 편성된 이후 을유(1765), 병술(1766), 기축(1769), 무술(1778),

38) 紹修書院任事錄. 寫本. [純祖 28(1828)] 제1책. 張. 7.

효종 4년(1653)에는 在任期間 표지 없이 院長은 金是直, 黃有淨, 黃中衍 세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느 黃氏인지 알 수 없다.

39) 各道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 2」(서울: 保景文化社, 1995), 1240.

40) 紹修書院任事錄. 寫本. [年紀未詳] 제2책. 張. 27.

경자(1780)에 점검한 기록이 있다. 병술(1766)과 기축(1769)의 경우에는 曝曬 기록되어 있다. 영조 38년(1762) 기록분에는 209종과 책판 7종이 수록되었고, 27종의 서적이 추록되어 함께 서적 236종, 책판 7종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서적 중에는 서원의 문서 가운데 「院中書冊置簿」에 수록된 것 보다 「雜錄」이 3권 많고, 「入院錄」 1권, 「書冊置簿」가 3권이 많은 것으로 보아 더 후대에 편성된 서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李裁가 안동 虎溪書院에서 편찬하여 정조 9년(1785)에 간행한 「朱書講錄刊補」가 수록된 것을 보아 정조 9년(1785)까지 추록되고 이후에도 점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은 정조 20년(1796)에 작성된 목록이다. 원장 權益休, 별유사 李周燮, 金樂顔이 작성한 목록이다.⁴¹⁾ 여기에는 서적 163종이 수록되었다. 이어 元錄과 비교해 보면 散失이 10종 4, 5인데 언제 때의 일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어서 典守者가 각별히 하지 않은 소치인 바 存佚을 기록하고는 후임들이 유념해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기록한 뒤에, 「壬戌錄」, 「寓軒集」 등 순조 10년(1810)까지의 서적 39종과 책판 3종 450판을 추록하였다. 역시 점검에도 사용된 목록이다.

「乙亥七月三日布曬書冊見存目錄」은 고종 12년(1875)에 작성되었다. 당시 원임인 金輝鍵과 申錫履⁴²⁾가 작성하였는데 모두 181종의 서적이 수록되었고, 「榆巖集」, 「痴巖集」 등 고종 28년(1891)까지의 16종이 추록되었다. 이 목록으로 丙子(1876), 己卯(1879), 丙戌(1886), 丁亥(1887), 辛卯(1891)에도 점검하였다. 이때 金輝鍵은 장서점검한 바 散佚本이 태반이어서 안타깝다고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수장의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은 1917년에 작성되었다. 원장 鄭玄謨, 별유사 安玟淵, 李鍾仁⁴³⁾이 작성하였다. 서적은 129종이 수록되었고, 책판은 「追遠錄」 330판, 「竹溪志」 131판, 「家禮諺解序」 3판, 「成先生遺稿序」 2판, 屏風書 3판, 雜書 10판이 수록되었다.

소수서원의 목록에는 분류의 순서를 확실하게 밝힌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經

41) 紹修書院任事錄. 寫本. [年紀未詳] 제3책. 張. 2.

42) 紹修書院任事錄. 寫本. [年紀未詳] 제3책. 張. 76.

43) 紹修書院任事錄. 寫本. [年紀未詳] 제5책. 張. 4.

史子集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초기의 서원장서목록은 사분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록의 분류순서나 범위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경사자집의 순으로 수록되다가 추록분에 와서는 허물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목은 장서를 이용할 때도 사용되고, 점검할 때도 사용된 사무용 목록이었다. 따라서 군데군데 서명 위 아래에 주색 또는 목색의 점검표시가 있다. 장서목록은 종이를 접어서 책으로 매어 목서한 책자형목록이다. 저록내용은 書名, 卷冊數, 缺本與否, 缺本理由 등을 수록한 간략서목이다.

6. 紹修書院 刊行의 書籍

佛家の 서적과는 달리 儒家의 서적에는 刊行者和 刊行處를 밝힌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당해서적 자체에 소수서원 간본임을 밝힌 서적은 볼 수 없었다. 순흥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에 대해 「攷事撮要」에는 「竹溪志」가 수록되어 있는데, 풍기의 판목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⁴⁾ 「六臣遺稿」는 영조 6년(1730)에 편찬된 「慶尙道冊板」,⁴⁵⁾ 영조 16년(1740)에 편찬된 「冊板置簿冊」,⁴⁶⁾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⁴⁷⁾에 모두 순흥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韓國冊版目錄」에 수록된 「冊板錄」에는 印紙數만 밝히고 있는데, 「竹溪誌」는 白紙5束 「追遠錄」은 白紙16束7張, 「六臣集」은 白紙4束5張 이 인출에 소요된다고 수록되어 있다.⁴⁸⁾

한편 영조 38년(1762)에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紹修書院冊錄」의 권말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 7종이 수록되어 있다. 그 책판은 「竹溪志」, 「六臣遺稿」, 「追遠錄」,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蹟」, 「鳶飛魚躍」, 「學求聖賢」이 있고, 이어서 서적인 「漁溪集」과 「朱書刊補」는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

44)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 1」(서울: 保景文化社, 1995), 26.

45) 慶尙道冊板. 「韓國의 冊板目錄 1」(서울: 保景文化社, 1995), 333.

46) 冊板置簿冊. 「韓國의 冊板目錄 1」(서울: 保景文化社, 1995), 367.

47)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 1」(서울: 保景文化社, 1995), 646.

48) 冊板錄. 「韓國의 冊板目錄 3」(서울: 保景文化社, 1995), 1485.

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⁹⁾ 『韓國冊版目錄叢覽』에는 「家禮諺解」 3판, 「追遠錄」 330판, 「竹溪誌」 白紙5束과 「竹溪誌」의 篇名인 <安氏世家> 1판, <雜錄> 30판, <雜書> 10판, <尊賢錄> 25판, <竹溪誌記> 5판, <竹溪行錄> 35판, <藏書錄> 5판, <學田錄> 4판, <行錄後> 11판이 수록되어 있다.⁵⁰⁾ 이들 목록에 순흥 수장이라 기록되어 있어도, 관할이 순흥이라는 것이므로 지금 일부가 소수서원에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수서원 장판임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에는 전래되고 있는 책판도 몇 종 있다. 「追遠錄」, 「竹溪志」, 「家禮諺解序」와 「六臣遺稿」의 일부 책판과 「鳶飛魚躍」, 「學求聖賢」과 몇종의 草書 판목이다. 우선 양적으로 가장 많은 책판이 전래되고 있는 것은 「追遠錄」이다.

순흥 안씨를 대상으로 한 「追遠錄」의 인본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본의 전래를 알 수 없다. 내용은 晦軒 安珣을 중심으로 순흥에 세거하던 순흥안씨 上代 인물에 대한 전기서라 할 수 있다. 수록인물이 포함된 당시의 司馬榜目, 功臣敎書, 祭文, 墓誌, 世系圖 등과 해당인물이 편찬한 시문을 수록한 것이다. 권1-5에는 안씨의 분파부터 시작하여 晦軒 安珣을 중심으로 祖考에 이르기까지를 수록하였다. 권6-8에는 수록인물의 외가에 대해 행장이나 전기적인 사실을 세계도와 더불어 기술하였다.

「追遠錄」의 간행을 주도한 安應昌이 義城縣令으로 재직할 때 판각한 것이다.⁵¹⁾ 崇禎丙子後己丑(1649)년에 14대손 安應昌의 誌文이 있다. 간행사실에 의하면 營吏 李光喆, 金希益, 李世豪, 金益燁, 吳震湖와 色吏 丁泰升이 서사했고, 假吏 李得化, 假小童 金泰源, 吳望龍, 吳俊漢, 良人 李一淳, 吳得成, 宋義發, 寺奴 金銀陽, 僧人 海月, 信宗, 寶俊, 覺憲, 杜英, 杜默, 官奴 愛壽, 義還, 莫哲, 汝業, 傑伊가 刻字하였다. 또한 孝宗 9년(1658) 4월에 聞韶(義城)에서 판각하기 시작하여 9월에 완성하였는데, 순흥 백운동 소수서원에 이장하였다.⁵²⁾ 책판의 전체수는 340장이

49) 紹修書院冊錄. 寫本. [英祖 38(1762)-正祖 9(1785)]. 張. 11.

50) 尹炳泰, 鄭亨愚, 韓國冊板目錄叢覽.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2, 445, 406, 289, 376, 377, 386, 406, 474, 480.

51)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冊板 調査」油印本. (榮州: 紹修書院, 1998), 2-5.

52)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冊板 調査」油印本. (榮州: 紹修書院, 1998), 2.

라 하였는데 334권이 전래되고 있다. 책판의 대다수가 서원에 전래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판목이 전래되고 있는 것은 「竹溪志」 119판이다. 「竹溪志」는 慎齋가 白雲洞書院을 건립한 이듬해(1544)에 편찬하여 명종 2년(1547) 사이에 간행⁵³⁾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晦庵祠와 서원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내용은 <安氏行錄>,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 <雜錄>, <別錄>이다. 安珦의 후손인 安碩, 安軸, 安輔, 安輯의 행록, 朱子의 白鹿洞書院에 관한 글, 白雲洞書院의 설립, 그 토지와 장서를 수록한 것이다.

「六臣遺稿」는 조선 死六臣의 시문을 모은 문집이다. 그 가운데 成先生遺稿序 등 극히 일부인 5판만 전하고 있다.⁵⁴⁾ 연기미상의 「書冊目錄」에 「六臣遺稿」 판목 아래에 ‘辛亥十二月二十一日移送于彰節祠詳見雜錄’이라 기록되어 있다.⁵⁵⁾ 彰節祠는 寧越에 있는 六臣祠를 숙종 35년(1709)에 彰節祠로 사액한 것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5판은 彰節祠로 이관할 때 착오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家禮諺解序」는 송 朱熹의 「家禮」를 申湜이 한글로 번역하여 인조 10년(1632)에 목판으로 간행한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은 범례에 이어 通禮, 祠堂, 司馬氏居家雜儀, 冠禮, 婚禮, 喪禮, 祭禮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판은 서문 3판만 전래되고 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다른 곳으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수서원에서 판각한 책판은 서원의 藏書目錄, 冊版目錄과 전래하고 있는 판목 등을 종합하면, 「家禮諺解」, 「追遠錄」, 「竹溪誌」, 「六臣遺稿」,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蹟」, 「鳶飛魚躍」, 「學求聖賢」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와 「岳武穆筆蹟」은 인출하여 책자로 만들 수 있겠으나, 「鳶飛魚躍」, 「學求聖賢」은 단독으로 책자로 만들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반 책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家禮諺解」의 서문 3판, 「追遠錄」 334판, 「竹溪誌」 119판, 「六臣遺稿」 5판, 「文成公神道碑」, 「鳶飛魚躍」, 「學求聖賢」은 전래되고 있다. 이외에 서원에는 내용이 밝

53)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 第17」(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張.2.

54)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冊板 調査」油印本.(榮州: 紹修書院, 1998), 15-30.

55) 書冊目錄. 寫本.(年紀未詳) 張.14.

하지 않은 草書의 판목이 여럿 전래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가운데 「洪荷衣草書」와 「岳武穆筆蹟」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7. 紹修書院 藏書의 特性

서원 장서의 특성은 서적의 入手方法과 藏書構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서적의 入手方法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원의 書目을 통해 밝혀볼 수밖에 없다. 陶山書院의 서목이나 傳掌記에는 서적마다 서적을 보내온 기관이나 간행자를 밝히고 있으나, 紹修書院의 서목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매우 드물다. 대개 장서점검할 때 현품이 없는 서적에 대출자와 대출일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수방법에 의한 특성을 알기 어렵다. 陶山書院과 易東書院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 서원에서 장서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대략 6가지였다. 主享者나 設立者의 서적을 移管하거나, 寄贈(國王, 地方官廳, 書院, 私家), 交換, 購入, 自體刊行, 送紙印冊 한 경우였다. 소수서원에서 서적을 입수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전래되고 있는 서목과 기록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1> 紹修書院 藏書의 收入先

年 度	書 名	送 付 者	事 由	典 據
명종 12(1557) 5월	禮部韻 1部	醴泉郡守 權鎔	送來	G 20
선조 1(1568) 5월	十九史略 7	院長 權應參	備藏	G 33
선조 14(1581) 12월	武陵雜稿 8	永川郡守 周博	送來	G 41
선조 14(1581) 12월	朱子節要	院長 黃詒	備藏	G 41
선조 15(1582) 5월	理學統紀 8	院長 黃詒	備藏	G 41
선조 18(1585) 5월	小學集成 5		備藏	G 42
선조 18(1585) 5월	秋江集 4		備藏	G 42
선조 18(1585) 5월	家語 2		備藏	G 42
선조 18(1585) 5월	翻譯小學 6		備藏	G 42
선조 19(1586) 2월	大廣益會 4	院長 南忠良	備藏	G 42
선조 19(1586) 2월	杜詩 22	院長 南忠良	備藏	G 42

<표 3-2> 紹修書院 藏書의 收入先

年 度	書 名	送 付 者	事 由	典 據
선조 21(1588) 冬	儀禮圖 10	監司 金晬	送來	G 43
선조 21(1588) 冬	唐鑑 5	監司 金晬	送來	G 43
광해 12(1620) 3월	朱子語類 2권	院中立議	綱目과 交換件	F 5-6
인조 27(1649) 7월	保宥錄	京中 安應昌		F 5-37
효종 즉(1650) 11월	朱文酌海 8	巡察使 李旻		F 5-38
효종 즉(1650) 11월	小學 4	巡察使 李旻		F 5-38
효종 즉(1650) 11월	書大文 2	巡察使 李旻		F 5-38
효종 1(1650) 2월	啓山志 1	榮川官		F 5-38
효종 4(1653)閏7월	鶴峯先生集 5	安東廬江書院		F 5-43
효종 6(1655) 정월	儀禮圖	巡營		F 5-45
효종 6(1655) 정월	儀禮經傳 20	巡營		F 5-45
효종 9(1658) 10월	追遠錄 7	義城官		F 5-57
효종 9(1658) 10월	愚伏文集 10	道南書院		F 5-57
현종 즉(1659) 7월	補閑集 1	義城縣令 安應昌		F 5-59
현종 즉(1659) 7월	自庵集 1	義城縣令 安應昌		F 5-59
현종 즉(1659) 7월	追遠錄 板子 342立	義城		F 5-59
현종 2(1661)	北崖詩藁	義城	來	A 11
현종 4(1663) 8월	圃隱集 2	奉化縣監 鄭雲翼		F 5-67
현종 5(1664) 6월	金自庵書帖 1	善山府使 安應昌		F 5-68
현종 5(1664) 6월	大草書 8丈	善山府使 安應昌		F 5-68
현종 6(1665) 4월	帝王歷年冊 1	善山府使 安應昌		F 5-68
현종 8(1667) 7월	牧隱集 17	監司 李泰淵		F 5-69
현종 8(1667) 7월	稼亨集 4	監司 李泰淵		F 5-69
현종 8(1667) 7월	麟齋集 1	監司 李泰淵		F 5-69
현종 10(1669) 4월	一松集 4	觀察使 沈粹	送來	F1667-3
현종 13(1672) 12월	皇明紀略 4		買得	F 5-72
현종 13(1672) 12월	白沙集 9		買得	F 5-72
현종 14(1673) 冬	書傳大文 2		備藏	A 12
숙종 2(1676) 6월	文宣王畫像簇軸	郡守 朴千榮	官造	F 5-74
숙종 8(1682) 11월	破冊 30帙		改衣	F1667-13
숙종 17(1691) 4월	海東樂府 1		備藏	F1667-43
숙종 23(1697) 春	綱鑑會要 17		買得	A 12
숙종 29(1703) 11월	光國志慶錄 1		備上	F1667-87
숙종 30(1704) 3월	湖洲集 1	府使 蔡成胤	送來	F1667-87

<표 3-3> 紹修書院 藏書의 收入先

年 度	書 名	送 付 者	事 由	典 據
숙종 36(1710) 11월	西厓樂府 3	院長 李徵道	新備	F1667-93
숙종 36(1710) 11월	四佳集 13	院長 李徵道	新備	F1667-93
숙종 42(1716) 2월	松波集 2	永春倅 李必相	送來	E 33
숙종 45(1719) 정월	葛川集 2	安隱 龍門書院	送來	F1667-127
숙종 45(1719) 정월	瞻慕堂集 2	安隱 龍門書院	送來	F1667-127
숙종 45(1719) 정월	桐溪集 5	安隱 龍門書院	送來	F1667-127
영조 7(1731) 12월	六臣遺稿 板木 89판	寧越倅 李基正	要求	H 19
영조 13(1737) 冬	鶴谷集	星州官	送來	D 30
영조 15(1739) 정월	朴正字遺稿 7	永春官	送來	D 32
영조 16(1740) 冬	月川集 2		買得	B 14
영조 16(1740) 冬	聲巖集 2		買得	B 14
영조 17(1741) 春	忠經	林?	送來	B 14
영조 17(1741) 春	孝經	林?	送來	B 14
영조 19(1743) 7월	謙庵集 2	河回	送來	B 14
영조 20(1744) 8월	敬亨集 6	義城 藏待書院	送來	B 14
영조 20(1744) 8월	松隱集 1	義城 藏待書院	送來	B 14
영조 20(1744) 8월	梧峯集 4	義城 藏待書院	送來	B 14
영조 20(1744) 9월	孤松集 2	義城 申震龜	送來	B 14
영조 27(1751) 4월	眉叟集 15	院長 李基定	新備	F1667-93
영조 36(1760)	錦波集 5	郁陽書院	刊來	D 40
영조 36(1760)	知足堂趙先生內外忠烈記	晉州	送來	D 41
영조 46(1770) 5월	恩巖集 3	豐基 愚谷	印送	C 8
영조 48(1772) 2월	東樂遺稿 4	府使 李夏源	送來	F1667-102
영조 48(1772) 2월	許敬菴遺事/許貞簡遺事	河陽 琴湖書院	印送	C 8
영조 48(1772) 7월	溫溪集 3	陶山	印送	C 8
영조 48(1772) 7월	溪巖集 3	陶山	印送	C 8
영조 48(1772) 9월	栢巖集 4	文丹刊役所	印送	C 8
영조 51(1775)	錦江集 2		印送	C 8
영조 51(1775)	晚翠集 1		印送	C 8
영조 51(1775)	勿巖集 3		印送	C 8
영조 51(1775)	修巖集 3		來	C 9
정조 2(1778) 10월	先祖文集(存齋集) 3	寧海 李周遠	溫泉書堂 刊行	H 11, C 10
미상	辨破錄 1	陶山	送來	C 9

<표 3-4> 紹修書院 藏書의 收入先

年 度	書 名	送 付 者	事 由	典 據
미상	文節公遺稿 2	丹溪書院	印送	C 9

* A 院中書冊置簿, B 書冊目錄, C 紹修書院冊錄, D 庚子雜錄, E 癸巳雜錄
F 紹修書院雜錄, G 雲院雜錄, H 雜錄 이다.

書院文庫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모태가 되는 것은 서원에 제향된 主享者의 直孫이나 設立者가 수장하던 서적을 이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陶山書院의 서목과 傳掌記에는 서적을 보내온 곳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어 파악하기 쉬운 편이다. 따라서 이 서목을 통해보면 樾철 후 도산서원으로 장서가 이관된 易東書院 초창기의 서적은 모두 58종⁵⁶⁾인데 퇴계가의 서적을 이관시킨 것이 24종이었고, 寄贈이 5종, 質得이 11종, 나머지 18종이 미상이다. 서원 설립 당시에는 전체 서적의 약 40%가 退溪家에서 이관된 서적이므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⁵⁷⁾ 그러나 紹修書院의 경우 主享者의 서적이나 設立者의 서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서원문고에서 設立者나 主享者의 後孫家에서 이관된 장서 이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 서적은 寄贈本이었다. 기증은 기증자에 따라 또 4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 첫째가 內賜本이다. 이는 왕명으로 中央官廳의 간본이 하사된 것이다. 둘째가 地方官廳에서 간행한 서적을 그 관청의 책임자나 관리가 증여한 것이다. 이 지방관판본은 監營에서부터 州, 府, 郡, 縣에서 간행한 것이다. 셋째가 다른 書院에서 간행하여 기증한 서적이다. 넷째는 私家刊本인데 사가에서 간행한 서적을 기증한 것이다.

內賜本은 중앙 관청에서 간행한 서적을 왕명으로 하사한 것이다. 국가가 서원의 교학을 장려하기 위해 하사한 서책이다. 내사서적은 賜額된 서원에만 반사되었고 그것도 초기에 사액된 소수의 서원에는 많았고, 문고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자명하다.⁵⁸⁾ 대개 서원에서는 內賜本을 매우 중시하여 별도의 건물

56) 易東書院記. 寫本. [年紀末詳], 張19-21.

57) 裴賢淑, “退溪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v.10 (1994.12), 151.

이나 공간을 마련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하였다. 이 內賜本에는 일반적으로 內賜記가 面紙에 수록되어 있고, 목록에는 ‘內賜’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내사본은 모두 28종인데 비해, 소수서원은 임진왜란 전 내사본만 21종 663책이다.⁵⁹⁾ 따라서 소수서원의 내사본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기록과 서적을 통해 추적해보면, 양적으로 서원문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방관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지방관판본은 90종이다. 그러나 소수서원의 확인된 지방관판본은 명종 12년(1557) 醴泉郡守 權鎔이 보내온 「禮部韻」, 선조 14년(1581) 永川郡守 周博이 보내온 「武陵雜稿」를 위시하여 32종이 확인되었다. 모든 서적의 기증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관으로는 醴泉, 永川, 監營, 榮州, 巡營, 義城, 奉化, 豐基, 善山, 永春, 星州, 晉州 등이다. 역시 지역적인 영향으로 영남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이 중심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종 8년(1667) 監司 李泰淵이 보내온 「牧隱集」에는 권두에 ‘甲申後丁未季夏白雲洞書院上’이란 목서가 있고, [慶尙道觀察使之印]이 있는데, 甲申은 明이 망한 이듬해이므로 淸 연호를 쓰지 않으려는 표현으로 추정된다. 영조 13년(1737) 星州에서 보내온 「鶴谷集」을 통해서 중앙이나 지방관청에서 기증하는 경우에는, 직접 서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감영이나 현으로 먼저 보내고, 현에서는 다시 서원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에서는 자체 간행한 서적을 다른 서원에 기증하거나 관계인사에게 배포하여 통행시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원간에 도서를 기증함에 당색을 엄격히 가리어 同系의 서원간에만 상호기증⁶⁰⁾ 하였다.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기록

58)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19.

李春熙교수는 이 內賜書籍이 書院文庫 成立에 決定的인 性格을 지닌 基本藏書가 되었다고 하였다. 內賜書籍은 書院文庫 形成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書院이 賜額된 때는 一般的으로 書院이 設立된 후 일정한 期間이 지난 이후이므로 母胎的인 性格을 지닌 基本藏書는 主享者나 그後孫家의 藏書나 設立者의 收藏本을 移管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紹修書院은 예외로 보인다.

59)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60.

60)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47.

이 나타난 것은 道南書院에서 기증한 「愚伏文集」, 郁陽書院에서 기증한 「錦波集」을 위시하여 8서원에서 12종의 서적이 기증되었다. 서원은 道南, 郁陽, 琴湖, 藏待, 龍門書院과 溫泉書堂 등이다. 대개 南人系의 서원에서 기증한 것이다. 당시의 추세를 비껴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谿谷集」, 「沙溪先生遺稿」, 「象村集」, 「尤庵集」, 「栗谷集」 등 西人系 학자의 문집은 발견되지 않았다.

私家寄贈本은 또한 확인이 쉽지 않다. 지방관판본의 일부는 사가기증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가기증본으로 확인된 것은 豐基 愚谷에서 기증한 「思菴集」, 陶山에서 기증한 「溫溪集」과 「溪巖集」, 河回에서 보내준 「謙庵集」, 義城 申震龜가 기증한 「孤松集」 등 9종이다. 이들 사가 기증본은 정확한 기록이 미비한 것으로 혹 지방간본일 수도 있다.

서원에서는 기증의 방법 외에 交換에 의해서도 장서를 증대시켰을 것이다. 이 방법은 서원간 또는 지방관청에 기증된 형태로 보기에 따라서는 기증이기도 하고, 교환이기도 한 방법이다.

서원 장서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購入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조의 사대부들이 서적을 구입하는 것은 그다지 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왔다. 조선조의 사대부들이 가진 서적에 대한 관념은 가장 愛藏하는 서적으로 1차는 中國本과 그 翻刻本, 2차는 한문으로 쓰여진 朝鮮本 전적이었다.⁶¹⁾ 서원에서 중국본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赴燕使行의 譯官들이 행하는 私貿易에 의해 도입된 중국본은 수요가 많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지방의 서원에서 재빨리 입수하기는 어려웠고, 책의 가격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본 서적의 구입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李春熙교수도 서원에서의 서적의 증가는 기증본에 의해 증가되고 구입의 예는 극히 드물었다⁶²⁾고 보았다. 그것은 사대부간에는 일종의 不文律이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었는데 아무리 가세가 기울어도 전적을 매각하지 않았고,⁶³⁾ 따라서 서적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았으므로 서적상

61) 青木修三, “朝鮮の 典籍に 就て,” 『文獻報國』 v.7. no.3. 昭和 16), 104.

62)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47.

63) 青木修三, “朝鮮の 典籍に 就て,” 『文獻報國』 v.7. no.3. 昭和 16), 103.

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종 13년에 書肆를 설립하여⁶⁴⁾ 서적의 매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冊居間을 통해 몰락한 양반가에서 유출된 서적을 매입할 수⁶⁵⁾ 있었으므로 서원에서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록을 통해 살펴본 바 서원에서 매득한 서적의 양은 상상외로 많아 소수서원은 조선말까지는 알 수 없으나, 설립 당시에 愼齋가 구입한 서적이 43종 525책이었다. 현종 13년(1672)에 소장한 『皇明紀略』과 『白沙集』의 입수방법에 대해 『雲院雜錄』에는 ‘買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紹修書院雜錄』에는 ‘備藏’이라 기록되어 있다. 備藏은 곧 買得으로 볼 수 있다. 선조 1년(1568)의 『十九史略』, 선조 14년(1581)의 『朱子節要』를 위시하여 모두 20종이 확인되었다. 도산서원의 경우는 모두 48종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소수서원은 설립시에 이미 43종을 구입한 바 있으므로 이후에도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적의 매득방법에 대한 기록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간행하거나 서사한 自體製作本이다. 소수서원에서 판각한 책판은 서원의 藏書目錄, 冊版目錄과 전래하고 있는 판목 등을 종합하면, 『家禮諺解』, 『追遠錄』, 『竹溪誌』, 『六臣遺稿』,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蹟』이라고 볼 수 있다.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와 『岳武穆筆蹟』은 인출하여 책자로 만들 수 있겠다. 현전하는 소수서원의 서목과 현물을 통해 살펴보면 서원에서 생산한 서적은 7종인데, 서원에서 自體刊行한 것은 전체 서적에서 비중은 높을 수 없다. 그러나 서사한 서적은 간본보다는 비중이 높다. 우선 서원 관계 등록류가 있고, 이외 간본을 입수할 수 없을 때 서사하였는데, 『兒戲原覽』, 『性理大全書』, 『貞元調』, 『百病救活錄』, 『中庸章句大全』 등이 전래되고 있다.

家勢가 기울어 資金을 마련하기 위해 賣却할 때는 1차로 家財, 2차로 家屋, 3차로 田地, 4차로 書籍, 最後에 先山을 賣却했던 것이다. 書籍은 先祖의 手澤本이므로 永久收藏하여 奉侍하고, 이로서 良師를 통해 士大夫의 길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다.

64) 柳本藝, 『漢京識略』 影印本. (서울: 市史編纂委員會, 1956). 卷2. 市廛條.

65) 朴尙均, 『書誌學散藁』 (서울: 民族文化社, 1989), 249.

조선시대에는 지방에 있거나 한미한 선비인 경우 국왕으로부터 서적을 하사 받을 수 없었고, 지방관판본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므로 구입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서적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서적입수를 돕기 위해 관청에 紙物, 米, 棉布를 대납하고 서적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書肆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로서 서원에서는 관청에 인출할 종이를 보내서 서적을 인출해 오는 送紙印冊을 통해 장서를 증대시킬 수도 있었다. 陶山書院에서는 送紙印冊本이 6종이 확인되었으나 소수서원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소수서원에서 서적을 증가시킨 방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소수서원의 경우 수장하였던 서적은 購入本, 內賜本, 地方官版本, 他書院刊本, 私家刊本の 寄贈, 自體製作本은 확인되었으나, 送紙印冊本과 設立者の 寄贈本은 확인된 바 없다.

둘째로 藏書構成에 있어서의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수서원은 교육기관이었으므로 愼齋가 구입한 초기의 서적도 송유역불을 국시로 삼았던 조선사회에 있어 중앙의 成均館이나 四學 또는 지방의 향교에서 구비한 서적과 輒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愼齋가 마련한 서적의 대부분이 유학의 기본 경서, 수준높은 성리학 서적, 문장의 수사에 관한 서적, 언행을 수양하는 서적이었다. 또한 退溪가 伊山書院에 院規를 제정해준 바도 이와 輒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伊山書院 원규의 첫째 조항에 「四書」와 「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小學」과 「家禮」를 그 문호로 삼았으므로 서원 교육은 程朱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程朱學과 科業에 필요한 經史와 文章에 한정되었다.⁶⁶⁾ 이 대목은 愼齋와 退溪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후대의 모든 서

66) 李滉, 「退溪先生文集」影印本. (大田: 學民文化社, 1990) 卷41. 伊山院規. 3517-3521.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
 一. 諸生常宜靜處各齋專精讀書非因講究疑難不宜浪過他齋虛談度日以致彼我荒思廢業…
 一. 書不得出門色不得入門酒不得釀刑不得用
 書出易失色入易汚穢非學舍宜刑非儒冠事(刑謂諸生或有司以私怒捶打外人之類此最不可開端若院屬人有罪則不可全赦小則有司大則與上有司同議論罰)

원 원규에 반영되었으므로 서원교육 내용과 부합되는 서적만 수장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屏山書院에서도 볼 수 있다. 屏山書院의 초기 장서는 經書, 歷史, 儒家類 서적과 약간의 傳記書와 文集으로 구성되었으나, 후기에는 傳記와 文集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집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중국학자의 문집이 많이 보이고, 후기에는 柳成龍 학맥의 영남학과 인물의 문집이 대다수였다.⁶⁷⁾ 소수서원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 李春熙가 조사할 때 수장되어 있던 서적의 반 이상이 文集類였고, 나머지는 經書 및 歷史書로 完帙本은 거의 없었고 파손된 책도 많았다.⁶⁸⁾ 반 이상이 文集인 것은 후대의 寄贈本은 文集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서원에도 南人系 학자의 문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8. 結 言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紹修書院 文庫의 成立, 藏書의 變遷과 管理, 特性과 刊行한 書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紹修書院은 慎齋 周世鵬이 순흥 宿水寺 터에 서원을 설립하고,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독지가의 회사를 얻어 學田과 寶米를 세워 유생의 藏修의 廩田으로 삼아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장서를 구비하기 위해 한성에서 43종 525책의 서적을 구입하여 마련한 것이 서원의 기본장서가 되었다. 명종 5년(1550) 李滉의 요청에 의해 賜額되어 土地, 奴婢, 書籍을 하사받음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때 하사된 서적은 3종이었다. 명종 7년(1552) 說經 安璫가 국가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는 서원에도 반사할 것을 청해 서적을 또 하사받았다. 이후 中央과 地方官廳에서 간행한 서적, 私家刊本, 書院刊本 등의 서적이 기증되어 증대되었고, 自體製作本도 있었다.

67) 朴現圭, “屏山書院書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v.14 (1994.12), 64.

68)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60.

선조 35년(1602)까지는 107종으로 증대되었고, 숙종 23년(1697)까지는 143종으로 증대되었으며, 숙종 중기에는 182종, 영조 38년(1762)에는 209종, 정조 9년(1785)까지는 236종으로 증대되었다. 정조 20년(1796) 163종으로 감소되다가, 순조 10년(1810) 202종으로 증대되었다. 고종 12년(1875) 181종으로 감소되다가 고종 28년(1891) 197종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준희가 조사한 1969년에는 141종 563책이었고, 남권희가 조사한 1997년에는 30종 145책만 남아있었다.

장서관리를 위해서는 명종 2년(1547)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를 제정하여, 서적을 모두 목록에 등재하게 하고 서적은 서원 문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서적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적이 손상되면 수보할 것과 수장하고 있는 책수를 연말에는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院規에는 열람은 원내에서만 하되 邑官吏의 자제라도 함부로 서적을 搬出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점검은 致齋日에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서관리를 위해 書目도 편찬하였는데, 藏書를 點檢하거나 任員이 交替될 때 작성하였다. 藏書點檢用으로 편성된 서목은 「紹修書院書冊置簿」 1책, 「院中書冊置簿」 1책, 「書冊目錄」 1책, 「紹修書院冊錄」 1책,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 1책, 「乙亥七月三日布曬書冊見存目錄」 1책,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 1책이다. 引繼書目은 1951년 작성된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만 확인되었다.

소수서원에서 판각한 책판은 서원의 藏書目錄, 冊版目錄과 전래하고 있는 판목 등을 종합하면, 「家禮諺解」, 「追遠錄」, 「竹溪誌」, 「六臣遺稿」,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蹟」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家禮諺解」의 서문 3판, 「追遠錄」 334판, 「竹溪誌」 119판, 「六臣遺稿」 5판, 「文成公神道碑」는 전래되고 있다. 이외에 서원에는 밝혀지지 않은 草書의 판목이 여럿 전래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가운데 「洪荷衣草書」와 「岳武穆筆蹟」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에서 自體刊行 한 서적은 전체 서적에서 비중은 높을 수 없다.

장서구성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儒家의 經書가 중심을 이루고, 程朱學과 科業에 필요한 經史와 文章의 修辭와 言行을 修養하는 서적이

었다. 후대에 오면 寄贈으로 인해 文集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장서입수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은 買入한 서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內賜本, 地方官版本, 他書院刊本, 私家刊本의 비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自體製作本도 있었다. 그러나 送紙印冊本과 設立者の 寄贈本은 확인되지 않았다.

陶山書院과 易東書院의 경우 서원문고의 장서는 主享者나 設立者가 수장하고 있던 서적이 근간이 되어 문고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장서가 증대되었는데 비해, 소수서원의 基本藏書는 購入한 서적으로 드러났다. 主享者인 文成公 安珦과는 시간적인 공백이 너무 길어 서적이 온전히 전래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다. 소수서원의 장서도 購入本, 內賜本, 地方官板本, 他書院寄贈本, 私人寄贈本, 自體刊行本으로 구성되었으나, 다른 서원에서와 같은 送紙印冊本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送紙印冊도 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문고는 기증본에 의해 장서가 증대되고 구입본은 거의 없었을 것이란 인식이었는데, 소수서원의 구입장서는 초기의 43종이 근간이 되었고, 후대에도 여전히 구입했으므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서는 고종년간 書院撤廢 때에도 건재했으나, 社會體制의 崩壞와 1950년 6·25사변으로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제 소수서원은 새로 정비되고 박물관도 건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산실된 서적을 다시 수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에 제작되는 서적과 문서를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사서를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 1」,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 油印本, 榮州: 紹修書院, 1998.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目錄」, 油印本, 榮州: 紹修書院, 1998.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冊板 調査」, 油印本, 榮州: 紹修書院, 1998.
 朴尙均, 「書誌學散藁」, 서울: 民族文化社, 1989.

-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v.14 (1994. 12).
- 裴賢淑, “退溪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v.10. (1994. 12).
- 書冊目錄. 寫本. [肅宗 24(1698)-英祖 37(1761)].
-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제17.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 12.
- 紹修書院任事錄. 5책. [中宗 37(1542)-1931].
-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 1책. 寫本. [正祖 20(1796)-純祖10(1810)].
- 紹修書院冊錄. 寫本. [英祖 38(1762)-正祖 9(1785)].
-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 寫本. [1951].
- 院中書冊置簿. 寫本. [孝宗 4(1653)-肅宗 23(1697)].
- 柳本藝, 『漢京識略』影印本. 서울: 市史編纂委員會, 1956.
- 尹炳泰, 鄭亨愚, 『韓國冊版目錄總覽』.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尹熙勉,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186호(2005. 6).
- 乙亥七月三日布囑書冊見存目錄. 寫本. [高宗 12(1875)-高宗 28(1891)].
-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서울: 一潮閣, 2001.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國國會圖書館, 1969.
- 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 李 滉, 『退溪先生文集』. 影印本. 大田: 學民文化社, 1990.
- 鄭萬祚,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8 (1980).
-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 寫本. [1917].
-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1970.
- 周世鵬, 武陵雜稿. 木版本. [哲宗 10(1859)].
- 周世鵬, 安昞烈編, 竹溪誌. 木活字本. [高宗 21(1884)].
- 周世鵬, 安昞烈編, 竹溪誌尊賢錄. 木版本. [隆熙 3(1909)].
- 周世鵬, 竹溪志. 木版本. [明宗 15(1560)].
- 青木修三, 朝鮮の 典籍に 就て. 『文獻報國』v.7. no.3. (昭和 16).
- 韓國의 冊板目錄 1-3. 서울: 保景文化社, 1995.